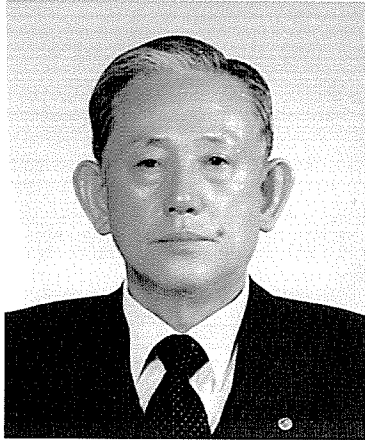


# 30년 쌓아온 과학기술 金字塔



崔亨燮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으로서 과학기술 진흥 창달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사명으로 출범한 본 연합회가 창립 30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동안 과총의 성장발전과 육성에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계 지도자,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오늘과 같이 성숙한 과학기술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신 과학기술계 원로, 동지, 역대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하해 맞이 않습니다.

우리 과총은 지난 1966년 5월, '발명의 날'에 개최된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국내과학기술단체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과학기술진흥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에 따라 그 해 9월 24일 역사적인 창립을 보았습니다. 과총이 창립되던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경제재건을 위한 사업이 막 케도에 오르

려 하던 때였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1백25달러였고, 수출고가 겨우 2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했었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은 낙후한 과학기술수준, 영세한 과학기술인력과 연구개발투자, 부실한 연구환경 등이 경제발전을 통한 조국 근대화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절감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사명의식과 솔선의 자세를 다졌음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총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안고 태동하였으며 그 창립정신은 지난 30년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면면히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난관극복...과학기술 풍토조성

이제 우리 과총은 오늘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의 활동과 업적을 스스로 과찬하거나 자만에 빠지기보다는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 건설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그동안 과총이 이룩한 업적중에서 몇가지만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과총은 시의에 적절한 과학기술진흥시책을 과학기술계의 중지로 수렴하여 정책 당국에 꾸준히 건의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법 제정과 과학기술처 설치에 건인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하여 과학기술인의 단합을 꾀하고, 나아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창립 당시 80여개에 불과했던 회원단체는 30년을 맞이하는 오늘 3백13개에 달하는 과학기술관계 학회

# 「과학한국」건설의 밑거름 되길...

와 연구단체를 망라한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회관 준공으로 새로운 후 열어

과학기술의 진흥이 학술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부단한 정보교류에 있다고 볼 때, 과총은 그같은 기회를 능동적으로 제공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하겠으며, 학회의 발전이 곧 과총의 발전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7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과학기술자와 국내과학기술자를 연계하는 가장 권위있는 대규모 종합학술행사로서 학계 및 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밖에도 과총은 지난 30년동안 새마을기술봉사단을 통하여 농어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구조의 과학화, 과학기술용어의 제정 및 한국과학기술30년사 및 과학기술인명사전의 편찬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으로써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필두로 총 9개의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던 「한국과학기술 회관」을 준공, 개관하여 최신 국제회의장을 마련함으로써 학회학술활동 진작과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총이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부의 따뜻한 후원과 원로선배 과학기술

인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회원단체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창립 30돌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과총은 과거의 축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전환점에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회원학술단체들의 학술활동조성에 힘써 연구수준 및 학회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차원높은 국제간 학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봉사기능을 강화시키는데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전체가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로 바뀌어 질 때 우리나라의 선진화·국제화도 달성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과총은 올해 과거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과학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극대화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인 품위 스스로 지켜

오늘 30주년의 한 획을 그으면서 다가올 2천년대 선진조국의 구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은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소임에 정진하여야 하겠으며,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를 우리 스스로 견지해 나감으로써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과총 육성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부, 관계기관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